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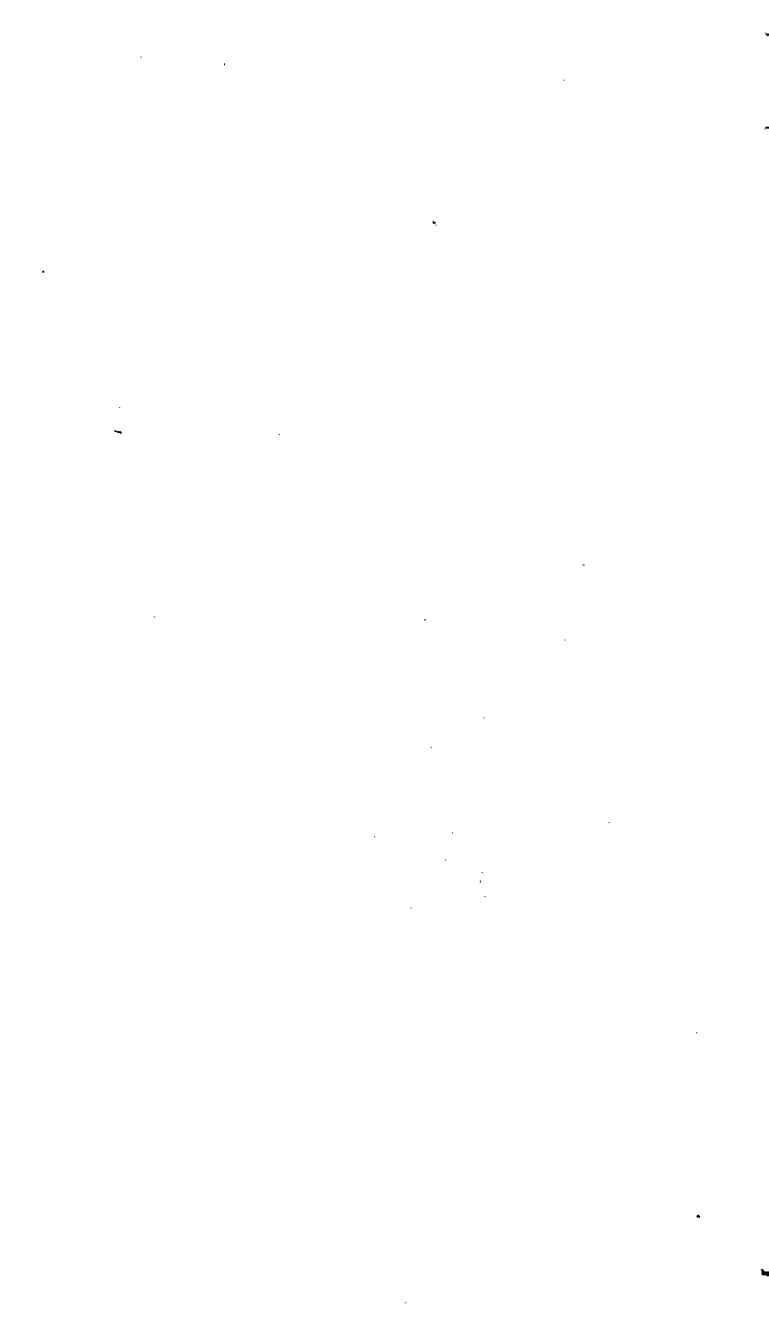
국통연 89-12-139

北韓의 教育實態

金 淳 培 (統一研修院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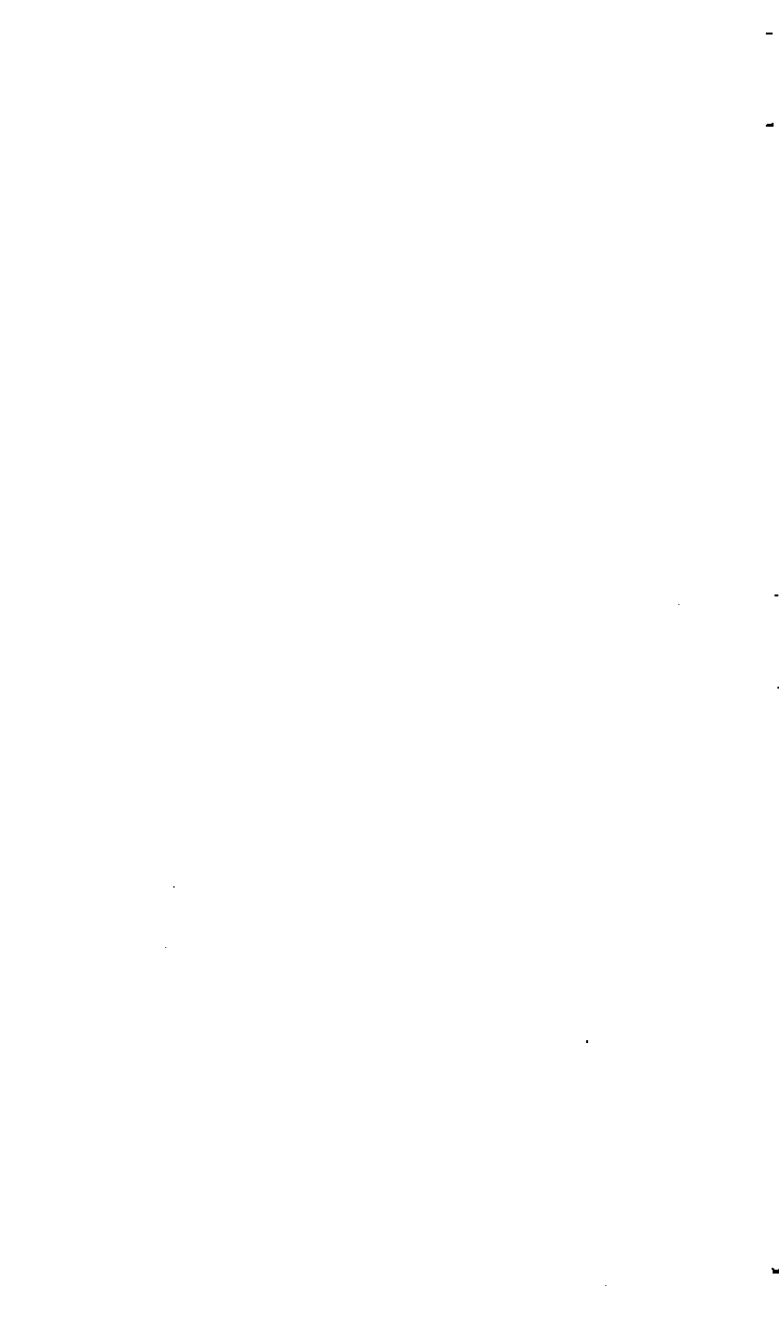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1. 序 論	3
2. 教育理念과 目標	5
가. 教育觀과 理念	5
나. 教育目標	9
3. 教育政策과 制度	16
가. 教育政策의 變遷과정	16
나. 政策 및 制度의 特徵	25
다. 教育行政 및 學制	33
4. 教育內容과 方法	42
가. 教育內容	42
나. 教育方法	52
5. 高等教育과 社會教育	56
가. 大學入學과 大學生活	56
나. 社會教育	65
6. 結 論	69



1. 序 論

教育의 궁극적 목표는 人間을 자연의 상태에서 理想의 상태로 끌어 올리며 社會와 國家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教育을 國家의 「百年大計」라 일컬어 왔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7~347)도 “어떤 國家를 원하면 그에 알맞는 教育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教育이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國家의 장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적절히 지적한 명언이라 할 수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公산정권을 수립하면서부터 教育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여 왔다. 그들은 教育을 公산혁명 수단으로, 정치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고 教育의 社會主義的 성격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 公산주의자들은 教育의 方向을 한편으로 金日成 개인과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두고, 다

른편으로 資本主義를 증오하면서 大韓民國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의식적으로 유도함으로써 民族의 이질화를 더욱 확대 심화시켜 왔다.

북한 교육의 政治性으로 말미암아 우리 民族의 同質性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북한 주민의 民族觀은 물론 가치관, 의식구조,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현저히 달라져 있다.

같은 민족 구성원간에 적개심을 고취하는 북한의 「증오교육」과 같은 일련의 정치교화 교육은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政治思想教育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統一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政策과 制度, 教育方法과 內容, 高等教育과 社會教育을 차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教育理念과 目標

가. 教育觀과 理念

國家와 教育은 어느 체제에 있어서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政治體制에 따라 국가가 教育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自由民主體制에서의 教育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문화체계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 라면 共產體制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혁명적가치관을 확립키 위해 國家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와 영향하에 教育을 예속시키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과 개성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한 억압시켜 오직 黨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共產主義 人間型을 주조해 내는 수단으로만 教育을 인식하고 있다.

레닌이 “정치에서 분리된 教育은 무용하다.”
고 하며 教育의 역할에 대해 “사유재산적 심리
와 민족주의적, 종교적, 기타 낡은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된 선진적 人間의 양성”¹⁾이라고 한 말은
共産體制에서 教育을 하나의 政治敎化의 도구로
밖에 취급치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 政治敎化의
性格도 人本主義思想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
게 해 준다.

北韓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教育관
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아가 더욱 교조적으로
「革命性」을 강조하고 있다.北韓에서는 教育을
「사상, 문화 교양의 무기」, 敎員은 「후대들의 혁
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
가」, 教育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 수
단 또는 주요한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²⁾ 이는
教育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教育者를 직업혁
명가나 또는 선전선동원, 學校를 공산주의 이론

1) 金炅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院, 1983, p. 160

2) 「사회주의 教育에 관한 테제」, 北韓概要, 國토통일원, 1983, pp.
398-425.

전파의 선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共產主義 教育觀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教育觀에 입각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다른 共產國家 보다도 더욱 教育을 통한 思想革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教育기관의 날을 버려야 한다”³⁾고 말하면서 教育을 통한 사상혁명을 촉구하였다. 北韓의 「사회주의 教育에 관한 테제」(1977. 9. 5 공포)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2개의 요새(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는데 이중에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서 思想革命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 이를 때까지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며 인간개조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教育이나 思想革命이란 바로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

3) 「사회주의 教育학에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 314.

기 위한 政治事業」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教育에 의하여 「共產主義的」으로 개조되지 못하는 個人은 생존해서는 안되는 社會의 건설을 뜻하며, 동시에 思想革命의 이름 밑에 계급투쟁과 숙청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永久革命의 논리이다. 북한에서는 스탈린의 「사회주의가 진전할수록 階級鬭爭은 더욱 첨예화된다」는 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北韓 共產集團은 김일성식의 공산주의 이론인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떠 받들고 있다. 教育에서도 그 뜻이 막연하기만 한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원칙이라 내세우며,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人間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란 「金日成 1人主體」라는 사실은 教育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결과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金日成에게 무조건 맹종·충성하며 목숨바쳐 그를 옹호 보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결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教育은 주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비주체적 인간

만을 양성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사상 혁명이야말로 모든 주민을 愚民化하고 전사회를 퇴보시키는 근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教育目標

모든 共產國家는 교육의 목표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세계혁명에 필요한 人材 양성에 두어 왔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교육 목표는 타 공산국가의 그것을 기저에 깔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고 대남 공산혁명을 추구한다는 데에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教育目標은 북한의 전주민을 ① 革命化 ② 勞動階級化 ③ 共產主義化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인간」(共產主義 革命 人材)을 육성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⁴⁾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

4)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北韓概要, 국토통일원, 1983, p. 399.

반 부터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된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教育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목표 가치가 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39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로 하여금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공산주의적 새인간」에 대해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조선 로농당 출판사, 197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① 共產主義는 놀고 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勞動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②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무장된 사람

③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④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

이상의 4가지 조건을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바로 人間의 本性, 최소한의 個人 欲求마저 억제된, 다시 말하면 個人의 모든 것이 희생되고 본성이 말살된 상태에 도달한 人間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北韓에서는 이상적인 인간형,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金日成과 金正日 父子만을 내세운다. 북한이 발간한 모든 책자에서는 金日成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교육학을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金日成은 1968년 3월 14일,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양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教育學의 존재

이유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教育目標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교육학도 그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教育과 「南朝鮮革命」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이 양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이른바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자세습체제를 공고화하고 나아가 「전국적 범위」에서 共產化革命(對南革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人間을 말한다. 즉 金日成의 명령과 지시라면 목숨을 내놓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人間을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教育은 다양한 품성과 자질을 가진 個人을 모두 똑같은 수준의 같은 모양을 가진 人間集團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북한은 1977년 9월 5일 장기 사회주의 教育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教育강령이라면서 「사회주

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공포하였다. 이 「테제」는 金日成이 그간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등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5개 章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교육의 교육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인 것이다.

이 「테제」에 나타난 教育理念과 目標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주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견지해야 할 원칙, 즉 정책노선으로서 ① 교육에서 黨性, 勞動階級性의 구현, ② 교육에서 主體의 확립, ③ 교육과 혁명 실천의 결합, ④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 사업에 대한 조직 진행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테제」의 발표 후,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 사상을 구현한 교육 강령”,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의 참다운 교육강령” 또는 “교육에 관한 백과사전이며 교육 총서”라 찬양하며 그 발표일을 「교육절」로 제정,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⁵⁾

이 「테제」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교육」은 이미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후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학의 원리이며 기본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1971년 12월 27일 개최된 「전국교원대회」에서 金日成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 독창적인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조하고 이를 완성하여 教育에 적용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독창적 사회주의교육학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서 ①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5) 「北韓總監」, 북한연구소, 1983, p. 125.

교육학은 어느 나라의 것을 막론하고 믿을 수 없으며, ②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먹기를 좋아하며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동경하는 修正主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어 1976년 4월 취학전 아동교육(탁아소·유치원교육)을 규정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는 教育綱領이라면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 「테제」에 나타난 教育觀과 政策方向은 그 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政治思想教育을 여타의 교육보다 최우선시하면서 과거보다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 教育理念과 目標,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 등 교육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획일화함으로써 학교와 개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差異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3. 教育 政策과 制度

가. 教育政策의 變遷과정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8.15 해방직후 여타의 모든 분야에서 소련식을 모방했듯이 教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교육학」을 직도입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소비에트 교육학」에 대한 반발과 함께 복고적인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教育理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⁶⁾

1970년 勞動黨 第5次 大會를 계기로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철저한 구현이란 정책목표를 넘어서서 이른바 북한 나름의 「社會主義 教育學」을 정립하여 더욱 교조적인 教育觀을 확립했으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제정, 발표되었다.

6) 任鍾燦, 「北韓의 教育·文化」, 民主統一論, 統一研修院, 1989, p. 156.

北韓의 教育政策은 政治 理念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북한 教育정책의 변화 또는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그 성격을 분류해보면 다섯단계로 구분해볼수있다. ① 공산주의 사상도입기, ② 전후복구 및 공산주의 확립기, ③ 생산교육 및 혁명 전통교양기, ④ 유일사상 교양기, ⑤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기이다. 이들의 시기별 정책 수행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 第1期：共產主義思想 도입 및 6.25 남침기(1945~1953년)

金日成은 북한에 共產政權을 수립하기 위하여 憲法을 비롯한 모든 정권 기구와 체제를 소련의 共產主義 原理에서 모방하였다. 따라서 教育 理念, 教育行政, 體制를 스탈린主義的인 「소비에트」 體制의 기본 노선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공산주의적 路線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식계층에게 까지도 전혀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이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學校教育과 成

人教育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한편, 문맹퇴치에 치중하며 日帝 植民統治 教育에서 탈피를 추진하는 등의 교육목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20개 정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나타난 북한 教育政策의 주요 방향은 문맹퇴치, 식민교육의 청산과 공산주의 이론의 보급이었다.

한편, 1950~1953년 6.25남침기에는 “후대 교육은 가장 고귀한 革命課業의 하나로, 그리고 모든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학교 교육은 군사훈련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후에는 人力動員의 필요상 초등교육(人民學校)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다.

• 第2期 : 전후 복구 및 공산주의 확립기 (1953~1960년)

이 기간의 교육정책은 6.25 동란으로 인한 파괴와 폐허 상태를 복구하고 사상적 침체를 극복하려는 데에 역점이 주어졌다.

이 시기 教育政策의 초점은 전후 복구를 서두르며, 金日成 1人 獨裁體制를 구축키 위한 사상 교육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精神教育과 通信教育을 확충하였다.

(1953년 이후 북한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라는 기치 아래 한층 더 소련식의 共產主義 理念을 강화하였다. 1955년 4월 勞動黨 中央委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 강화에 대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學校教育의 목표를 정신무장을 시키어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956년 말에는 體制의 개편을 통해 4年制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였으며, 1958년 11월에는 중학교 3년 과정도 포함하여 7年制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하여 학생의 연간 義務勞動시간을 인민학교 10일, 중학교 2~4주, 기술고등학교 5주, 대학 3개월로 정하여 學生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였다.

• 第3期: 生産教育 및 革命傳統 教養期
(1960~1966)

이 시기에는 앞의 시기와 같이 학생들의 노동 교육과 생산기술교육을 계속강화하며 새롭게 革命傳統教養이라는 주입식 사상교육을 학교교육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1961년 勞動黨 第4次 大會에서는 다음의 7가지 기본원칙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반영토록 하였다.

① 교육의 목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다방면으로 발전된 새로운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② 이론과 실천의 결부, 교육과 생산의 결합을 강화한다.

③ 기술교육을 일층 강화한다.

④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한다.

⑤ 문화혁명의 수단으로 성인교육을 강화한다.

⑥ 교육부문에서도 천리마운동을 강화한다.

⑦ 학원에 대한 黨의 지도를 강화한다.

이 시기에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1966. 11. 공표), 「黨의 중앙집권적 권력 강화」, 「계급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노동정신교양」등의 여러 정책 결정과 구호들이 나왔다.

• 第4期 : 唯一思想 確立期(1966~1980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육정책은 과학기술의 제고와 사상교육 강화에 그 역점이 두어졌다. 이 시기의 사상교육은 이른바 黨의 唯一思想과 金日成의 主體思想 학습에 그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1962년 5월에 金日成은 「5.3교시」를 통해 각급학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黨 정책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연결」하여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기간중 교육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1966년 11월 23일자 「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

첫째, 중등학교 수준에 대한 기술교육의 강화로 초·중급의 기술자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근대산업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 일변도에서 오는 문화 정서 수준이 너무 낮다.

셋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1970년대에는 각급학교에서 「혁명전통교양」 과목을 설정하여 주로 金日成의 혁명전적지란 것을 만들어 이곳을 순례케 하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시켜 나갔다. 마침내 혁명전적지행진, 명산고적답사, 대열행진 등을 교과목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北韓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등 전반에 걸쳐 주류를 이루는 원칙과 노선은 이른바 金日成의 「주체사상」과 黨의 「唯一思想」이다. 이는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중립적인 독자노선을 견지, 자주성을 표방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思想體系가 바로 교육정책의 기초가 된 것이다.

• 第5期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運動期 (1980~현재)

이 시기엔 金日成 부자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 밑에 인간개조론을 더욱 부각시키었다. 「인간개조」의 개념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9조에 잘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共產主義 教育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주체형의 인간」을 내세워 인간개조론을 새삼스럽게 부각 강조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인간개조론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동 「테제」에서는 “.....사회주의의 주인인 人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데 있어 기본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개조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방

법은 1985년에 나온 「인간개조 이론」(노동당 40돛 기념, 강운빈 저)이라는 책에 보다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 인간개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간개조론은 주체혁명 이론의 중요부분의 하나이다. 인간개조 문제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론 실천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책 내용상 특징의 하나는 저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金日成의 교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金正日의 지적사항이라는 전제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권력세습문제와 함께 學校教育의 이론과 교육내용에서도 金正日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는 권력세습을 후대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教育理念과 政策方向은 각 시기별로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소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政策要素는 ① 개인숭배를 내용으로 한 政治思想教育의 강조 ② 教育政策을 對南革命 수행과 결부시키어 수

립, 집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나. 政策 및 制度의 특징

일반적으로 教育政策과 制度는 教育의 理念과 目標를 구현하기에 알맞게 결정된다. 共產主義 理念과 教育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의 教育 制度와 政策은 공산국가의 공통적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北韓에서 특유하게 변모한 특성도 갖고 있다.

그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① 教育에 대한 黨의 완전 통제와 정치에의 예속 ② 조기 정치사상 교육 ③ 집단주의에 입각한 교육 ④ 노동력 동원 ⑤ 군사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黨에 의한 統制

북한 교육은 勞動黨에 완전 장악되어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을 장악하는 黨의 전담 부서는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과학 및 교육부」이다. 이곳에서 教育政策을 수립

하며 그 정책집행 과정을 指導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가하고있다. 또한 지역당과 유관부서의 黨機構도 교육을 일일이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사로청) 등 당의 외각단체들도 교육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행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매 시기 제시되는 黨政策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육을 黨政策의 집행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이 政治에 완전히 예속된 결과이다. 때문에 教育內容에서도 政治思想性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같이 教育이 黨의 정치선전·선동과 밀접히 연계된데에는 공산주의적 教育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早期教育의 강화

북한은 「공산주의 새인간」 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키위해 조기교육을 강화하며 의무교육을 외

형적으로 확장해 왔다. 현재 북한에서는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면 유아가 태어나서 생후 30일 이후는 託兒所에 수용할 것과 만 4세 부터는 幼稚園(낮은반)생활을 권장 내지는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취학전 1년의 유치원의 높은반 과정 부터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여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早期教育의 강화는 정치 사상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집단주의 정신함양에 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탁아소, 유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철저하게 金日成 父子의 우상화, 반미사상과 대남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처럼 취학전 아동의 조기교육에 역점을 두며 의무교육을 외형적으로 확장시켜 온 것은 ① 어릴때부터 가정과 전통문화체제로 부터 격리하며 ② 부녀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 할뿐 아니라 청소년도 효율적으로 통제 동원하며 ③ 궁극적으로는 金日成 父子를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⁷⁾ 이는 또한 대남 및 국제적 선전효과도 감안한 조치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일, 주, 월, 탁아소와 유치원, 11년제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 공유화되고 개인의 사유재산 형성이 불가능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시 말해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 최저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북한체제에서 무료교육, 무상교육의 길 밖에 없는 것이다.

3) 集團主義에 입각한 教育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개성과 소질등 個人的 特性을 무시하고 수령과 당에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형의 같은 定型을 주조키 위해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7) 都興烈, 「北韓靑少年의 社會化實態」,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1978, pp. 187~190.

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第49조)고 규정해 놓은 바와 같이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상기와 같은 「集團主義原則」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는 없다」는 사실이다. 듀이(J. Dewey)의 教育哲學에 기초하고 있는 西歐 自由主義社會의 教育觀은 어디까지나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價値觀이다.⁸⁾

북한교육에서는 個人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되고 개인은 집단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집단적 조직 생활에 관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생활과 교수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8) 金東奎,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研究」, 統一論叢, 국토통일원, 제3권 1호, p. 84

북한의 각급학교의 조직단체로는 「소년단」(8~13세),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14~28)이 있으며, 그밖에 「붉은 청년근위대」등의 조직이 있다.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청소년조직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구호 밑에 각종 모임과 회의 참석, 집단행군과 야영등 군대의 병영생활과 같은 집단생활에 참가한다.

각급학교의 집단적 조직생활에서는 정치사상 교양이 여러형태로 부단히 반복 주입되고 있다.

4) 學生 勞動力 動員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고 규정하고, 교육 「테제」에도 사회주의 교육방법으로서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산정권 수립 직후부터 학생의 노동력 동원이 강제되어 오다가 1959년 부터는 「學生社會義務勞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學生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노동은 무보수인데도 1일 작업량이 할당된다. 또한 勞動力 동원의 대상 범위도 대학생에서 인민학교 학생 까지 포함한다.

대학생은 연간 12주, 고등전문학교 학생은 연간 10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의 의무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⁹⁾ 학생들에게 규정된 의무노동 시간은 긴급을 요하는 과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수시동원함으로써 매년 초과하게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무상교육을 선전하고 있는데, 전학생에게 수업료가 면제된 시기가 바로 1959년의 「학생사회 의무노동」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인 점을 감안할때 이는 수업료 면제는 사실상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의 대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9)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국토통일원, 1983, p. 26.

5) 軍事訓練

북한에서는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金日成 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고 대남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軍의 幹部化를 추진해 왔다. 그밖에 북한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體育의 대중화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전투능력 향상과 호전성 조장에 주력해 왔다.

학생들의 체력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국방체육」은 사격, 산악훈련, 장애물넘기, 수류탄던지기, 무기 분해·결합등 20여 종목에 달하고있다. 각급학교에는 각 지역과 단체들에 조직되어 있는 국방체육구락부나 해양구락부등 체육구락부들이 설치되어 있어 이의 지도하에 국방체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학교 학생에게는 「전쟁놀이」, 「남조선달리기」 등의 체육종목이 부과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들부터는 정규군 못지않은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매주 교내 군사훈련 이외에

야외훈련과 입영훈련을 받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 청년근위대」가, 대학에는 「教導隊」(1959년 「대학노농적위대」로 발족하여 1974년에 「교도대」로 개편)가 조직되어 있다. 그 편성을 보면, 學校 단위는 聯隊, 학부(전학년)단위는 大隊, 학급단위는 小隊로 되어 있으며, 지휘관은 각급 학교의 黨委員長이 맡고 있다.

다. 教育行政 및 學制

1) 教育行政體系.

북한의 교육체계는 이미 언급한 대로 勞動黨의 완전 통제와 감독하에 놓여 있다. 教育政策의 수립과 집행의 총괄적 지도·감독은 勞動黨 중앙위원회의 「과학 및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초기에는 黨中央委 「선전선동부」에서 관장) 행정부서인 政務院 산하의 「教育委員會」는 정책의 집행과 교육행정을 통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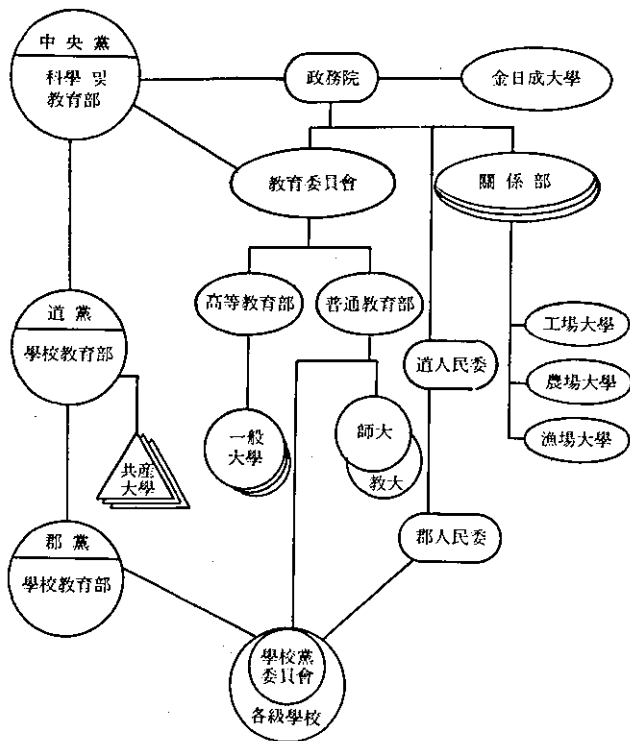
정무원의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는데, 전자는 일반 대학을, 후자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각급 학교를 분장한다. 여기서 특이한 예외는 金日成 綜合大學이 정규의 教育行政體系에 망라되어 있지 않고 政務院에 직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의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金策工業大學을 비롯한 平壤醫學大學·金亨稷師範大學 등 몇개의 水準級 특수대학만을 中央(教育委員會)에서 관장하고 그 밖의 많은 大學은 地方級 대학이라 하여 市道單位 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도 특색중의 하나이다. 大學의 入學·卒業者 배치 등 特定問題는 市郡單位 행정기관에서도 간여한다.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成人教育機關으로 工場大學·農場大學·漁場大學·鑛山大學 등이 있는데, 이들은 政務院 산하의 關係經濟部가 教育委員會와 협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



2) 基本學制

북한의 기본학제는 우리와 다르게 4~6~4(6)

制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대학은 綜合大學, 單科大學, 敎員大學의 3종류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단과대학은 원칙적으로 4년제이나 교원대학은 3년제이다. 북한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우 社會科學部는 5년, 自然科學部는 6년제이다. 이외에 직업전문학교인 3년제의 高等專門學校가 있다.

이 기본학제 이외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어촌과 광산 등에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각종 생산노동 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가) 취학전 교육과 의무교육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이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이다. 취학전교육 1년을 의무화한것도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주입과 집단주의 정신 함양을 조기 교육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취학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6년에 제정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 제6조에 보면 “.....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목표아래 2년제인 유치원의 후기(유치원 높은반)부터 의무교육으로 취급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4년제 인민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도 취학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의 주입에 가장 큰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6년간의 중등교육은 11년간의 의무교육의 완성 기간으로 되어 있다. 중등교육기간에는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 낸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교육의 학교 교육체제와 특수교육의 학교제도(외국어, 체육, 예능 등)의 학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6년제인 고등중학교에서 실시되는데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중등교육에서의 교육 내용 역시 인민학교와 같은 맥락에서 혁명사상의 고취와 계급 투쟁의욕의 고취, 김일성의 신격화 등이 각 교과목의 내용으로 개발되어 있다.

김일성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質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교육목적관을 제시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대학(4~6년)과 그 위에 연구원(3~4년) 그리고 박사원(2년)으로 연결된다. 또 대학과 병행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3년)가 있다. 이런 정규과정 이외에 노동현장과 연결되는 공장대, 농·어장대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敎員大學은 명칭 그대로 인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師範大學은 고등중학교 高等班 敎師를 양성하는 第1師範大學과 고등중학교 中等班 교사를 양성하는 第2師範大學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敎員大學과 第1師範大學, 第2師範大學은 각도에 1개씩 설치되어 있다.

(成人敎育機關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은 주로 공장, 기업소, 광산 등에 부설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직능 敎育을 담당하고 敎育기간은 5~6년으로 2部制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大學校라기 보다는 工場·企業所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養成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3년제의 職業專門學校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양성하는데 2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북한전역에 공통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建設專門學校, 藝術專門學校 등이 이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茂山高等鑛

業專門學校, 第2高等陶瓷器專門學校 등이 이에 속한다.

다) 特殊學校

특수학교로는 萬景臺革命學院, 강반석혁명학원과 같은 특수층의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藝體能系 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유치원「높은 班」과정부터 高等中學校까지의 11년제로 되어 있다. 海外宣傳活動에 종사할 特技者를 양성하는 예체능계 학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더욱 出身成分, 思想性이 중요시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간 일정한 틀 속에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制度的 利點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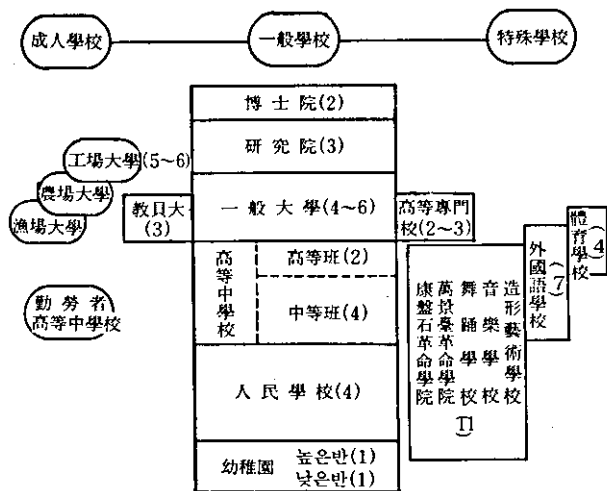
라) 학교 및 학생수

북한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28, 358개, 유치원은 19, 262개가 도시와 농촌에 분포되어 거기서 200만의 유아가 양육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1985년 현재로 인민학교는 4,792개교, 고등중학교는 4,738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의 총수는 492만3천명이라 주장한

다.¹⁰⁾

한편, 郡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의 수는 473개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 대학은 235개로 추정되며 그중 40%는 공장대학이며 기타는 1~2개과만 설치된 단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學校教育體系圖



10) 方院柱, 朝鮮概觀(평양의국문출판사, 1987) 번역자료, 국토통일원, 1988, pp. 161~162.

4. 教育內容과 方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教育條件과 手段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社會主義教育」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것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教育理念과 目標達成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人間改造에 의한 「共產主義的 새 人間」의 양성—이것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 教育內容

1) 知育과 德育: 政治思想 教育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 내용을 크게 둘로 대별한다면 ①김일성 우상화와 대남혁명을 고취

하는 정치사상교양 내용과 ②생산·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과학과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 투입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주체사상에 의한 武裝과 이를 위한 혁명 전통 敎養, ②共産主義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견지, ③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 ④집단주의 정신의 敎育敎養, ⑤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함양, ⑥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으로의 武裝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이 政治思想敎育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人文系統의 학과에서는 물론 自然科學 계통의 학과, 예를 들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政治思想敎育을 잘하는 기초위에서만 科學技術敎育과 體育敎育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사상 教育內容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이다.

金日成은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에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3段階論」을 제시하면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憎惡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표면적으로는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증오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증오의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원래 教育의 근본목표는 인간의 잠재력 啓發과 함께 이 중에서도 人間性의 함양에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의 지속적인 對南 적개심을 고취하는 「憎惡教育」은 民族教育과 民主教育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증오교육」은 南北韓의 異質化와 적개심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民族의 同質化와 民族和合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11)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p. 375~378.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 국어, 산수, 공산주의 도덕, 김일성혁명활동, 음악, 글씨, 圖畫工作 등 7개 과목을 內容別로 분석해 본 결과 총 304개 단원중에서 金日成과 그의 家系의 우상화가 96개 단원으로 32%, 대남적대의식과 反美思想 고취가 81개 단원으로 27%, 그리고 北韓體制 찬양이 28개 단원으로 9%이다. 이 3가지만으로도 도합 205개 단원에 68%에 이르고 있다. 반면 여타 組織教養과 一般教養은 99개 단원으로 32%에 불과하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과학이나 모두 혁명에 복종해야지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¹²⁾라는 생각에서 數學과 體育까지 政治思想教育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數學教育은 數의 구조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정치사상적 實用性에 입각하고 있으며 계산문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政治, 經濟, 軍事問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¹³⁾

12) 위의책 p. 313.

13) 「東亞日報」(1984. 6. 22)

학교별 교과내용

학 교	과 목
인 민 학 교	국어, 산수,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역사, 지리,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등 10~12과목
고 등 중 학 교	국어, 수학,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역사, 세계사,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15~18과목
대 학	전공·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 투쟁사, 김일성주의 철학, 정치·경제학 등은 필수과목으로 이수

출처:北韓의 實相(韓國精神文化研究院편)1986, p.220.

政治思想 위주의 교과서 내용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서에 호전적 언어가 상용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교과서는 물론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에서는 호전적이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戰鬪的·革命的 용어를 일반생활언어로 사용하

고 있다. 즉, 「까부시다」, 「원쭉」, 「놈」, 「피바다」 등의 말이 통상어로 사용되고 「打勝」(승리), 「革命的 戰取物」, 「高地占領」(목표달성) 등과 같은 군사적 용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의 共產主義者들이 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¹⁴⁾로 간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렇듯 「원쭉」, 「놈」, 「피바다」와 같은 전투적 언어를 계속 사용케 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맹목적인 세뇌효과를 얻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각급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정치사상 내용의 일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偶像化·革命傳統 教養〉

• 泰山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원수님 은덕(人民校4 國語)

• 해바라기가 太陽을 따르듯 수령님 교시따라(高中3 國語)

14)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1076.

15) 金契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所, p. 177.

- 首領의 訪問과 밤잠(高中3 國語)

〈대남적개심 및 계급의식 고취〉

- 南朝鮮 失業者數의 증가율(高中1 代數)
- 南朝鮮 賣血賣眼球 $5+5=?$ (人民1 算數)
- 욕심 많은 개(人民1 國語)
- 어린이에 대한 地主의 만행(공산주의 도덕)
- 욕심장이 地主를 人民들이 죽여버렸다(·)

〈排外思想(反美·反帝)〉

- 명성 아버지 얼굴 흠집은 미국놈이(人民3 國語)
- 美國놈 탱크 50대중 인민군이 30대를 까부셨다. 앞으로 몇 대를 더 까부셔야 하는가?(人民1 算數)

2)體育:好戰的인 人間養成

自由世界에서는 體育을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성된 全人形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북한에서는 “체육은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달시켜 集團主義精神과 革命的 동지애, 굳센의지, 그리고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이다”¹⁶⁾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體育을 통해 革命과 建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투사형의 人間을 養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실시되는 모든 체육활동에서는 순수 아마추어 정신의 발휘보다는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투지에서 金日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政治思想性이 강조되고 있어 모든 체육활동이 政治活動의 한 형태로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體育政策은 金日成의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독창적으로 창조했다는 소위 「혁명적 체육전통」에 기본을 두고 모든 정책을 이와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간다고 강조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체육의 대중화, 생산노동과 체육활동의 결합, 체육을 통한 김일성 우상

16) 「정치용어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04.

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체육의 대중화, 군중체육화를 통해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는 국방체육의 강화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국방체육을 위주한 체육의 대중화라는 구호 아래 전주민에 대한 전투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체력향상을 위한 경기종목으로 사격, 산악훈련, 장애물넘기, 격검, 수류탄 던지기, 트랙터운전, 응급처치법, 독도법, 수기 신호, 무기분해 결합 등 20여종에 달하는 경기를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기술 향상은 물론 호전적인 기질을 길러왔다.

학교에서는 학교사로청 지도하에 과외활동시간과 매주 토요일(체육의 날)을 이용하여 사격과 제식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기재의 조작은 물론 인접지역의 지형지물을 익힘으로써 유사시를 위한 지역단위 방위훈련까지 겸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공산주의자들은 生産活動과 체육을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들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業間體操」, 「생산체조」 등을 만들어 열심히 보급하였다.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자원 확보와 부진한 생산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육활동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사회의 체육은 노동에 몸 바쳐 일하도록 하여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 시킨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에서 김일성사상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에 역점을 둔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였다.

김일성우상화와 관련한 체육경기의 명칭을 보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전달」, 「만경대-봉화리-보천보달리기」, 「우리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 이어 달리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돛 기념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우

상화를 위해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集團體操 (마스게임)의 명칭도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자」,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피우자」,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 합시다」,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체 주체 만세」,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대를 이어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겠습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체육은 혁명의 이익에 부합하고, 당의 노선에 충직하며,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教育方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教育方法으로서 ① 깨우쳐주는 교육, (②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生産勞動의 결합,) ③ 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의 강화, ④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⑤ 學校前교육, 학교교육, 成人教育의 竝進 등을 제시하고 있다.)

共產主義의 새 型의 인간 양성을 위해 조기교육에서 平生教育까지, 集團主義에서 反復教育까지의 時空을 초월한 洗腦的·馴致的 수단이 동원된다.

교육 「테제」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教育方法인 「깨우쳐 주는 교육」은 학교 교과목의 수업 등을 통한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깨우쳐 주는」 방법에서는 파블로프(I.P. Pavlov : 1849~1936)의 조건반사이론이 원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주로 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Makarenko)나 크루프스카야(Krupskaya)등이 제시한 이론에서 원용하고 있다. 마카렌코의 집단주의 원리와 크루프스카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원리, 조기교육 효과의 원리 등등이 그러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계속 주어지는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반복하게 하는 조건화 방법과 같은 強化 理論을 가장 손쉬운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 훈련, 자기 훈련의 요소

를 비상히 중시한다.

다양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조건반사하도록 동일 내용의 반복교육과 함께 반대로, 단순논리를 복잡한 형식으로 전개시켜 개인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틈을 주지않는 수단과 방법도 동원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교육 방법 가운데, 특히 「理論教育과 實踐教育, 教育과 生活勞動의 結合」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革命을 하나의 실천운동으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의 行動指針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共產主義教育에서 教育과 生産活動이 결합되지 않은 지식은 無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 共產主義者들은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만 학생들을 改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教育과 生産活動의 結合」은 산 知識을 가르친다 하며, 학생들을 수시로 生産勞動에 동원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를 내세우는 목적이다. 그것은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라는 주장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조직생활에서는 공산주의의 敵對思想으로 되어 있는 個人主義, 利己主義, 부르주아思想이 용해되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思想革命은 누구에게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적대사상은 出身成分이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農民이나 勞動者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원리나 이윤동기가 없는 북한사회에서 주민을 제때에 生産勞動에 동원시키기 위해서는 組織生活을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學校生活에서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體得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은 사회 정치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黨政策

宣傳隊, 科學宣傳隊 등 각종 선전대를 조직케 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 등에 나아가 주민에게 黨의 政策路線에 따라오도록 선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노력 동원과 사회정치활동의 부담을 안고 있다.

5. 高等教育과 社會教育

가. 大學入學과 大學生活

大學進學制度에 있어서는, 高等中學校를 졸업하고 2~5年間 기업소 등의 職場生活이나 7년 이상의 軍服務를 마치고, 그동안의 黨 또는 社勞靑 組織生活에서 인정을 받아, 黨이 주관하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진학할 수가 있다. 가족과 친척의 출신성분이 불확실한 자(과거에 지주나 상인·종교인·6·25 당시 국군 동조자 등등)는 자격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은 1966년도 부터 다소 완화되었지만 출신성분, 본인의 당성은 여전히 성적 이상으로 중시되어왔다. 특히 교원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신분이 확실하고 당성이 높아야 가능하다.

1980年度부터 大學入學資格考査制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出身成分 위주의 대학추천으로 많은 불만이 쌓이고, 人力資源管理에도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成分中心의 추천이 決定的役割을 하는 點에서는 다름이 없다. 資格考査에 합격하고, 黨의 추천을 받은 者에 대한 선발기준은 ① 黨性を 고려한 出身成分 1/3 ② 政治社會團體生活 評點 1/3 ③ 入學試驗成績 1/3의 비율로 평정되기 때문이다. 志望에 의한 學科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黨의 人力養成計劃에 의해 배치될 뿐이다.

보통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20%는 직장에 배치되고 70%는 軍에 入隊하게 되는데, 約 10%에 해당하는 特權層 자녀는 예외로 卒業과 동시에 진학하는 특전이 있다. 萬景臺革命學院 출신은 여기에 해당한다.¹⁷⁾

17) 金煥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所 p. 178.

그러므로 軍에 입대하거나 직장에 배치된 者가 대학에 진학하자면 軍 또는 직장생활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 소속 黨機關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나마 적대계층에 속하면 대학 進學이 근원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형식상 시험과 졸업논문이 부과된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 기초를 닦는 의미로 대개 6~12개월 동안 실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大學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學位를 수여하지 않고 자격증을 준다. 인문, 사회 예술분야 졸업자는 전문가,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졸업자는 技士의 자격증명을 받게 된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졸업자들은 수준에 따른 教員 자격증을 받게 된다.

學士學位는 연구원(우리의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박사학위는 박사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끝낸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들 연구원과 박사원은 주요대학들, 金日成大學이나 과학원, 사회과학원과 기타 다른 연구기

관에 설치되어 있다.¹⁸⁾

대학졸업 후의 직장배치에 있어서도 中央級大學의 人文系는 中央黨에서, 自然系는 政務院에서 결정하며, 市道級 대학은 市郡人民委員會가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黨幹部子弟는 統治分野에, 平黨員의 子女는 하급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배치되고, 그밖의 졸업자는 생산공장에 배치된다.

북한의 고등교육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 專門大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과대학은 실제에 있어서는 韓國의 綜合大學의 어떤 한 전공학과에나 해당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4년 한해 동안에만 40개 單科大學과 8개의

18) 김동규,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9, p. 84.

工場大學을 새로 설립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동시에 平壤을 비롯하여 각도에 1개씩 전문적인 과학기술자의 조기양성을 위한 特殊科學英才學校로 「제1고등중학교」를 신설, 1985년 9월 일제히 개교하였다.

북한은 최근에 와서 매년 약 15개 교의 전문 교육기관을 증설해 왔다. 이들 新設學校는 특수 교육과 사회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이 기능공 양성소와 같은 專門大學들이다. 1986년에 원산 철도차량 단과대학, 온천제염단과대학, 홀동공업대학등 6개의 대학이 신설되었다고 하며, 1988년에는 강계공업단과대학등 4개의 단과대학과 11개의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고 선전하였다.¹⁹⁾

② 이렇게 철도차량, 제염, 탐사, 도자기 단과대학등 세분화된 직업별 전문대학의 설치 이외에도 工場(각종 생산공장 부설학교)을 중심으로 工場大學, 農場大學 등 직장 교육기관을 확충하

19) 「内外通信」, 제 657 호, 내외통신사, 1989. 9. 15.

고 있는 것이 북한대학제도의 특성이라 하겠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 1960년에 140여개, 1982년에 186개, 1989년에 235개의 대학이 있다고 한다.

北韓이 최근에 와서 고등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고 「제1고등중학교」라는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김일성우상화에 기초를 둔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부진하게 되어 「합영법」의 제정등 점진적인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른 技術人力의 확보가 절박한데서 나온 교육정책의 전환이라 볼 수있다.

대학의 관리운영, 교수내용과 방법, 학생활동 등은 김일성 종합대학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전국의 각급학교의 학사업무가 중앙의 조선노동당에서 지시하는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중앙집권주의에 의거한바와 같이 대학의 학사업무도 黨에서 관장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黨의 統制를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 學校黨委員會가 조직·설치되어 있다. 同委員會는 黨의

외곽단체인 「社勞青」, 「職業總同盟」, 「女性同盟」 등의 조직을 통하여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統制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大學黨委員會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²⁰⁾

- 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事業의 組織・遂行
- ② 幹部 後備隊의 육성과 조직적인 훈련
- ③ 教職員과 학생을 黨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
- ④ 初級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는 지도사업
- ⑤ 大學內의 社會團體의 조직・강화, 사업방향과 방법의 제시와 감독
- ⑥ 대학행정 및 교육사업의 指導
- ⑦ 大學教導隊의 군사훈련과 전투태세의 완비, 軍事動員事業의 보장.

이상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大學黨委員會의 권한은 막강하며 대학당위원회의 責任秘書는 副

20) 李桓九, 「교육행정 2 원화를 형성한 政治組織體系」, 北韓(1984. 11호) pp. 93~94.

學長이자 大學內 軍事組織의 지휘관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대학교육정책 노선과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과 기관의 黨 委員會와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은 대학생의 모든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작성 지시한다.

北韓의 大學生들은 「사로청」의 지도 아래 월별·주별로 짜여진 일정에 따라 각종 생산활동이나 노동력 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대학생들은 각 요일별로 짜여진 「사회 봉사의 날」, 「회의의 날」, 「문화의 날」, 「위생의 날」, 「기술연마의 날」, 「체육의 날」에 참가하여 단체활동을 해야한다.

金正日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생산 현장이나 교육장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돕고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3대 혁명소조」가 조직되었다. 이들 대학생들은 소조원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 생산활동과 사상 선전에 동원되고 있다.

北韓 大學生 生活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바로 軍事訓練이다.

대학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校內訓練이외에 매학기말 1~2주의 야외훈련을 실시한다. 대학 4년간에 교내훈련 960시간, 入營訓練 1,780시간, 도합 2,740시간을 이수한다. 그리고 졸업전에 실시되는 40여일의 입영훈련에는 예비군 소위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²¹⁾

高等中學校 고등반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조직되고 1959년 1월에 북한의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필수과목화한 것은 김일성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이 지시는 6·25전쟁 때 김일성대학의 학생들을 小隊長으로 배치시켜 일선에 보냈으나 무서워서 도망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대학 4년간 부과된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면 여타의 학과목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이수하더라도 졸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21) 金晷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所 1983. p. 170.

大學生의 학년별 군사훈련²²⁾

학년 구분	과 목 및 내 용
1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열훈련(제식동작) • 화기학(개인화기) • 조준훈련 • 지형학 • 각개전투훈련 • 규정학
2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열훈련 • 화기학(공용화기) • 공병학(축성지뢰) • 분대전술훈련
3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열훈련 • 화기학(공용화기) • 분대 · 소대공격방어훈련 • 사격훈련 • 병과별 특기훈련 • 화생방훈련
4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 소대공격방어훈련 • 화기학(공용화기) • 병과별 특기훈련 • 3학년실시과목반복

나. 社會教育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政治敎化의 일환으로 정
규학교 학생에게만 政治敎育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민을 대상으로 再敎育과 學習을 하
도록 강요하고 있다. 간부들은 각종 재敎育기관
에서, 일반노동자 · 농민은 각급 成人敎育機關에

22) 김동규,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9. p.
38.

서 새롭게 사상무장을 하며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북한에는 일반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과 통신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는 노동자·농민에게 생산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공장·기업소등 생산 현장에 설치된 근로자 고등중학교, 공장(농장, 어장) 대학등이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인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당의 幹部와 黨員, 일반 직장의 간부요원을 재교육시키는 社會教育機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 고급당학교」, 道共產大學, 郡黨學校, 인민경제대학등이 있다. 하급 당간부는 共產大學에서, 郡黨의 책임자와 道黨의 간부는 「김일성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에서 1년 반 내지 3년간의 보수 교육을 받는다.

政務院의 부장을 비롯한 중앙의 幹部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²³⁾

그 밖에 당 및 행정기관등의 간부들중, 비판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再教育하는 단기 세뇌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일반 주민들은 직장과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學習에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되어 있다. 비록 정규적인 교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원이나 일반주민을 막론하고 하루 2시간 이상 學習을 해야 한다.²⁴⁾ 學習 방법은 강습회, 자습회, 강연회, 작업전 휴식시간에 진행하는 독보회, 조회등이며 學習科目은 주로 「김일성 노작」, 「로동 신문」등이다.

주민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은 黨의 외곽단체인 「직맹」, 「농근맹」, 「여맹」 등이다.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간한 정치사전에는 이러한 사회단체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 학교”라 밝히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8시간노동, 8시간 학습, 8

23) 조선중앙년감 1976, (평양: 조선중앙통계국), p. 189.

24) 「로동신문」(1975. 11. 10)

시간 휴식」(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의 하나는 “전당, 전군, 전민이 학습하자”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학습에 관한 선전 문구로는 “학습으로 혁명사업을 시작하고 학습으로 일생을 마치는 인민”, “학습으로 일과가 시작되고 학습으로 일과가 끝나는 나라”, “어린이로 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학습하는 나라”라는 말들이 쓰이고 있다.

북한의 각종 보도매체에는 “한두끼 밥은 굶을지언정 혁명사상의 학습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혹은 “학습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쟁취해서 학습을 보장하라”고 독려하기도 한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학습은 조직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며 전사회적 규모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북한에서는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질서, 1주일에 1번씩 강연회 및 정세강연, 화요학습, 반나절 학습, 해마다 현직 간부를 재

교육하는 한달 학습”을 실시한다고 자랑한다.²⁵⁾

북한 보도매체가 소개하는 모범적 學習事例로 죽음을 눈앞에 둔 군인과 교원, 의사등의 학습을 들고 있다. 중상을 입은 인민군대의 처녀 소대장은 자기가 죽는날에도 2시간 學習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켰다고 한다. 그 밖에 전투를 하면서 실시하는 군정학습, 행군중의 문답식 학습,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밭머리 學習 등 다양한 學習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思想學習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학습경연대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며, 1974년 6월부터는 모든 주민들이 언제나 김일성 서적을 가지고 다니도록 강요하고 있다.

6. 結 論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그 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5) 「로동신문」(1981. 5. 21)

그것은 교육이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출발부터가 非教育的이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양성」이란 북한의 교육목표는 反民主的이며 人爲的인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自我를 실현하는 교육 일반의 목적과는 달리 획일적인 政治思想教育에 치중함으로써 ① 어떤 사물이나 사회현상을 보고, 黨이 지시한 대로 의미밖에 얻어 낼 줄 모르는 폐쇄적 획일적 단세포적 人間, ② 공산주의 사상, 金日成 우상화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그 껍질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맹종형의 人間, ③ 인간 상호관계를 협력과 협조의 관계로 보지 않고 적의와 증오의 심리적 긴장감을 갖고 투쟁으로만 보는 호전적 人間을 육성해 왔다.

이같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지난 40여년간 政

治教化에 의하여 북쪽의 모든 사람의 사상, 가치관, 의식구조와 사고 방식, 행동양식과 행동 체계까지 공산주의화를 추구하고, 남쪽의 우리와 민족적·문화적 유대감을 희박케하고 민족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다. 북한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인 동시에 平和的 民族統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북한의 인간개조 교육과 思想革命은 바로 우리의 현실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관과 배치되는 교육을 통한 사상혁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 反動思想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思想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人間本性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본성의 발로를 인위적으로 억제·말살하려고 노력해도 인위적 수단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근절시킬수는 없다.

지난 40여년간 人間改造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북한

안에 「혁명의 배신자」, 「혁명의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사조의 침습과 부분적 개방 필요성은 思想革命의 한계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북한공산주의자들이 教育과 學習을 통한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우리식대로 살자」, 「오직 한 길 따라」라는 구호하에 교조적인 계급투쟁의 캠페인을 벌리고 있으나 시대적 추세인 變化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사상혁명을 강조하고 이를 계속 추구하는 한 통일의 실마리는 풀리기 어렵다. 북한 교육의 변화는 바로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北韓의 教育實態 (통일총서/13)

1989年 12月 26日 印刷

1989年 12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234-4102

(국통연 89-12-139)

